



농어촌공 고창지사, 농지은행 청년농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근춘)는 지역 청년농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및 지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농지은행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창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중점 제도개선사항을 교육하는 한편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사업 활성화 방안도 활발하게 토론했다.

참가 청년농업인들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 참여 및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근춘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와 청년농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임용묵 기자